

월/요/광/장

곽수중



서브프라임 사태로 불거진 미국발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 정도가 안정을 찾아 가는 것 같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가 저점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둔 평가 보고서를 내놓는 순간, 베어스틴사의 매각 조치가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한 행보를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부에선 혼란을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사태가 수습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고유가, 고환율,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양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과 같은 불안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문제는 크게 '성장'이나,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 없다. 흔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수가 있으니, 하나라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굳이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세 정부의 제일 목표는 '경제성장'인 것 같다. 그러나 물가 상승 압력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경기 진

작 정책을 적극 펼치기는 마땅치 않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은 공황에 대해 오랜 연구한 저명 학자다. 그런 그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 유가

가 배럴 당 90달러를 넘볼 때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유가는 100달러 선을 쉽게 넘지 못했을 수 있다. 심리적 패닉상황을 야기함으로써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이 된 것은 유가만이 아니다. 원자재 및 곡물가격도 대상이었다. 그의 '변'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버냉키 의장은 물가 안정에 치중하다 보니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 하나의 볼트와 너트를 잊

한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서브프라임이 도입된 시기다. 1~2%대 수준의 금리가 5%대로 치솟으면서 대량 연체와 개인 파산사태가 발생했다. 기준금리가 5%면 장기간 시정금리는 10% 이상이라 보면 된다. 물가를 잡겠다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것은 예측 못한 셈이다. 물가를 잡으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주택경기에 찬바람이 불고,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실물경제까지 냉기류에 휩싸인 것이다. 서브프라임 관매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서브프라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 금리를

인상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도 금리 인상에 앞서 반드시 가계 부채의 구성, 규모, 부동산 및 건설경기에 대한 탄력도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 금리를 무조건 낮추라는 의미는 아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에는 좋지 않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재산성이 반드시 향상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한·미간 금리 격차에 따른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 투기자금이 금리 차만 보고 들어왔다가는 환율 인상에 따른 환 손실이 더 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흐르는 물과 같다. 물가 안정은 수위조절 능력을 가진 댐에 비유된다. 수문의 높이가 금리 수준이라면 타이밍과 수문의 높이가 중요하다. 많이 차면 수문을 열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물을 내보낼지 계획을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은 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봄이 지나면 장마가 시작된다. 그린스펀은 너무 빨리 수문을 내렸다 율렸고, 버냉키는 댐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도 수문을 완전히 닫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삼성경제연구소·경제학 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파 물가안정 우선 순위는?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종오



필자는 가끔 수사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국민이 IMF 위기를 맞아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금불미를 들고 줄을 서 전 세계를 돌라다녔던 사실이나, 기름유출사고 100일 만에 16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태안해변을 찾은 사실을 떠올린다. 전 세계에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또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감사실에 찾아오는 저 사람이 바로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 중 한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자세를 가다듬는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태안 기름유출과

통을 받게 될 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구체적인 범행수법이나 시신의 상태까지 자세히 보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비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은지... 언론보도 뿐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구속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거의 제한 없

범죄 피해자 고통에 더 많은 배려를

같은 큰 사고가 아니라더라도 여름철에 수재가 발생하면 수재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화재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해도 역시 내일처럼 가슴아파하며 피해민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왔다. 수재로 인한 피해자들,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 기타 인재로 인한 피해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고통을 함께하여 그들이 아픔을 잊고 살아 갈 힘을 갖도록 도와왔던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초등학생이 유괴되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초등학생의 시신이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는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건을 재현한 드라마가 사나 번은 방송에 되풀이된다. 피해자의 부모, 친구들은 피해자 시신이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반복해 시청하면서 어떤 심리적 고

통을 받게 될 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구체적인 범행수법이나 시신의 상태까지 자세히 보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비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은지... 언론보도 뿐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구속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거의 제한 없

검증된 농산물 효능 인터넷 광고 자율화해야

아버지가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농산물을 올리고 광고를 하다 보니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농산물의 효능을 제대로 알리기가 어려웠다. 예를들어 어떤 농산물이나 약재가 고풍한 이나 당초·위장병·동맥 경화에 효능이 있다 면 이들 질병들을 표기해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텐데 규정상 질병과 농산물의 효능을 함께 선전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유통자나 소비자 모두 답답하

다. 농산물이 어디에 좋고 나쁜 지를 알아야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을텐데 말이다. 대학 또는 정부의 식품연구기관에서 검증한 식품 효능은 결과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식품의 약리적 효능은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산물의 인터넷 광고를 좀 더 쉽게 해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에 맞서서 경쟁력을 갖추고 버틸 수 있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기고

신길웅



지난 4월1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은 당연' 기사와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 추진 돼야'라는 사설은 시기적절한 지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매우 컸다. 하지만 2일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 광주 후보자 지역별 공약 발표'에서 지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신설'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민주당 측에 항의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교육도시로 전통을 이어온 광주는 고 교열을 매년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오는 8월 우주비행에 나서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는

를 놓치지 않고 있다. 대전의 KAIST는 충남 공주에 분교를 준비하면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얻어 광주과기원 학사과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여기에 전남대 공대의 무관심이 더해져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은 무산됐다고 한다. 바로 지역 이기주의에 희생된 것이다. 우리 고장은 R&D특구 조성, 서남권 과학인프라 강화 등 지역현안 문제를 추진하는데 과학영재 육성이 절실하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육성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광주는 우수 이공계 인재를 더 이상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꼭 필요하다

광주과학고가 배출한 영재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치러진 '중1 진단평가'에서도 광주가 서울을 제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월등한 실력을 보여줬다. 특히 수학·과학에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영재들의 집합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수도권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인재의 유출은 지역역량을 감소시켜 '1등 광주 1등 시민'을 육성하는데 장애물로서 안타까운만큼 증폭시키고 있다. 광주과기원 학사 과정이 개설되면 지역인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어 지역발전에 크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과기원 원은 대전의 KAIST와 포항의 포스텍(구 포항공대), 서울대 교수진과 비교하더라도 1인당 논문 발표수에서도 1위

유출해서는 안된다.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명문대학 이공계 학사 과정이 신설돼 진학 기회를 넓혀줘야만 한다. 이런 여건에 맞는 대학 개설이 바로 광주과기원의 학부과정 신설이다. 대전에 KAIST가 생길 때 충남대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충남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4·9총선에서 지역민의 한뜻 한마음을 실현시켜 줄 정치인들을 기대했지만 단 한 명도 공약에 미처 넣지 않았다. 이 허망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등 광주 1등 시민'은 교육이 뒤받쳐 주어야 한다. 이를 명심하고 후보들은 공약에 반영해 내년에는 '광주과기원 학사 과정'이 개설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광주 대성학원 부원장>

택배물품 주소 기입 대신 일련번호로 대체

얼마전 서울에서 택배상자에 적혀있는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강도질을 벌여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는 비단 서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각종 신종 범죄 수법에 허가 내뿜어 준다. 택배를 받은 집에서 매직으로 긁고 크게 썬여져 있는 택배상자의 자기집 주소와 이름을 일일이 지워버리는 어렵다. 현재 택배는 발송인이 수취인 주소를 적어 보내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일련번호 방식을 사용, 주소 대신 일련번호를 기입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택배 업체는 발송인에게 '서

울-A-3398' 형태의 활용 가능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발송자는 부여받은 번호만 택배물건에 기재한다. 그리고 택배사는 발송 의뢰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자사 전산망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해 두고 배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련번호만 있는 박스가 버려져도 되며 어느 집,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아닌가. 컴퓨터와 온라인망이 잘 구축돼 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만큼 정부 당국과 택배회사의 적극적 추진을 바란다. ▲이름·광주시 남구 화정동

시설

여수엑스포 광역교통망 확충 서둘러라

전남도가 6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이란 여수엑스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것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여수엑스포의 성공이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교통기반시설만으로는 하루 평균 예상 관람객 9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기획경영실장은 예정된 박람회장 진입로만으로는 하루 평균 5~6만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상 관람객 수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박람회장으로 진입하는 광역교통망은 오는 2011년 완공되는 순천~여수 자동차 전용도로(왕복 4차선)가 전부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박람회 기간 동안 교통체증으로 인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량 수용이 가능하고 전국적인 접근성이 탁월한 철도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여수반도 진입로의 단일화를 탈피하기 위한 새 간선도로 개설,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여수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연계 교통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관람객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여수 엑스포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수엑스포는 생산유발 10조3000억 원, 부가가치 4조1200억 원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유권자 투표율이 총선 '명암' 가른다

중앙선거관리위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18대 총선 투표율이 50% 초반대로 역대 최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저 40%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전남도선관위는 투표율이 지난 대선을 물론 17대 총선에 비해서도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 17대 총선 당시 거세게 불었던 '탄핵 역풍'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표율은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다. 광주·전남 상당수 선거구에선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투표율이 당락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은 후보 개인은 물론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선거관은 원칙과 명분이 실존된 채 혼탁·과열양상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거리가 먼 급류 현상 제공, 흑색선전, 상호 비방 등 구대정치의 망령이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관련 개입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총선보다 총선 후가 더 격정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총선은 4년간 지역을 대표하고 국가의 정치를 책임질 정치인을 뽑는 행사다. 정치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추악해도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국가의 정치 수준이 국민의 수준과 무관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냉철하게 심판을 내려야 선진정치를 앞당길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적당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적합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따지고 정책과 공약도 비교 평가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마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던 2세기 말, 황제 자리는 돈과 무력에 의해 결정됐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폐습은 즉위 사례금의 액수에 의해 제위(帝位)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경매식 황제 선출이었다. 유권자는 황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1만여명의 근위대 병사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황제 경매사건은 서기 193년에 일어났다. 적전 황제 가 근위대에 의해 살해된 뒤 두 명의 황제 후보가 나섰다. 후보는 플라비우스 술피키아누스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근위대 병사들이 병영의 방벽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위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는 율리아누스가 근위대 병사 1인당 6천250데나리우스(로마의 화폐단위)의 사례금을 부를 때 판가름났다. 상대방인 술피키아누스의 호가는 5천데나리우스였다. 율리아누스에게는 황제직이, 패자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승자의 즉위 기간이 오래가진 못했다. 돈맛을 본 근위대는 언제든지 더 높은 사례금을 부르

는 인물을 새 황제로 선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과 선거의 악연이 어디 로마 뿐이겠는가.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영국에서도 20세기 초까지 매표행위가 유행했다. 유권자는 황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1만여명의 근위대 병사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황제 경매사건은 서기 193년에 일어났다. 적전 황제 가 근위대에 의해 살해된 뒤 두 명의 황제 후보가 나섰다. 후보는 플라비우스 술피키아누스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근위대 병사들이 병영의 방벽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위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는 율리아누스가 근위대 병사 1인당 6천250데나리우스(로마의 화폐단위)의 사례금을 부를 때 판가름났다. 상대방인 술피키아누스의 호가는 5천데나리우스였다. 율리아누스에게는 황제직이, 패자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승자의 즉위 기간이 오래가진 못했다. 돈맛을 본 근위대는 언제든지 더 높은 사례금을 부르

돈선거



는 인물을 새 황제로 선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과 선거의 악연이 어디 로마 뿐이겠는가.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영국에서도 20세기 초까지 매표행위가 유행했다. 유권자는 황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1만여명의 근위대 병사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황제 경매사건은 서기 193년에 일어났다. 적전 황제 가 근위대에 의해 살해된 뒤 두 명의 황제 후보가 나섰다. 후보는 플라비우스 술피키아누스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근위대 병사들이 병영의 방벽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위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는 율리아누스가 근위대 병사 1인당 6천250데나리우스(로마의 화폐단위)의 사례금을 부를 때 판가름났다. 상대방인 술피키아누스의 호가는 5천데나리우스였다. 율리아누스에게는 황제직이, 패자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승자의 즉위 기간이 오래가진 못했다. 돈맛을 본 근위대는 언제든지 더 높은 사례금을 부르

는 인물을 새 황제로 선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과 선거의 악연이 어디 로마 뿐이겠는가.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영국에서도 20세기 초까지 매표행위가 유행했다. 유권자는 황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1만여명의 근위대 병사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황제 경매사건은 서기 193년에 일어났다. 적전 황제 가 근위대에 의해 살해된 뒤 두 명의 황제 후보가 나섰다. 후보는 플라비우스 술피키아누스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근위대 병사들이 병영의 방벽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위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는 율리아누스가 근위대 병사 1인당 6천250데나리우스(로마의 화폐단위)의 사례금을 부를 때 판가름났다. 상대방인 술피키아누스의 호가는 5천데나리우스였다. 율리아누스에게는 황제직이, 패자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승자의 즉위 기간이 오래가진 못했다. 돈맛을 본 근위대는 언제든지 더 높은 사례금을 부르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info.